

동화 제목	똑똑한 여우와 어리석은 양		
동화 주제	나쁜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대상연령	3 ~ 5세	소요시간	10 분
활동자료	여우, 양 		

여우 한 마리가 발을 빛디어서 깊은 우물 안으로 빠졌습니다.

여우는 우물에서 나가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우물이 너무 깊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에 양 한 마리가 우물가로 왔습니다.

양은 고개를 숙여 우물 안을 살펴보다가 여우를 발견하였습니다.

“여우님! 왜 우물 안에 있나요? 물 마시려 온 것 아니었나요?”

양의 얘기를 들은 여우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양님! 이 우물 안에 있는 물이 참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시냇가의 물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양님도 좀 내려와서 한 모금 마셔보는 것이 어때요?”

마침 물을 마시려 했던 양은 여우의 만족해하는 미소와 유창한 말솜씨에 속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나쁜 양은 허둥지둥 물을 마시려 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마음껏 마신 양은 우물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양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여우님, 우리 여기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양은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미리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 들어왔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우는 진심으로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양님이 나를 좀 도와주기만 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먼저 양님이 발을 벽에 기대세요.

그럼 내가 양님의 등을 타고 위로 기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간 다음에 양님을 우물 안에서 빼주면 문제없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어떤가요, 양님.”

“아! 이 방법은 아주 좋은 것 같군요! 여우님은 정말로 똑똑하세요!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해요!” 양이 말했습니다.

양은 여우가 말한 방법대로 벽에 발을 기대고 여우가 올라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우는 양의 어깨를 디디고 우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우물 밖으로 빠져나간 후 양을 꺼내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습니다. 양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여우를 불렀습니다.

“여우님! 제가 아직 우물 안에 있습니다! 아직 저를 꺼내주지 않았어요!”

“이 어리석은 양이여! 만약에 네가 똑똑했더라면 우물 속으로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떠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내려와야지!”

말을 끝낸 후 여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멀리 사라졌습니다.